

메시지 3

하나님의 백성의 두 가지 악과
자신의 경륜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성경: 렘 2:13, 시 36:8-9, 요 4:10, 14, 7:37-39, 고전 10:4, 12:13

I. 이스라엘의 죄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과 벌에 관한 말씀으로 가득한 책인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분의 의도가 그분께서 생수의 원천 곧 근원이 되 시어 선택하신 사람들 안에 분배되심으로써 그들의 만족과 누림이 되시는 것임을 계시한다. 이러한 누림의 목표는 하나님의 증가이자 하나님의 확대인 하나님의 배필 곧 교회를 신출하여,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분의 충만이 되게 하는 것이다. 신성한 계시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으로 우리 안으로 일해 넣으실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셨다는 것이다 — 렘 2:13, 시 36:8-9, 요 3:29-30, 4:10, 14, 7:37-39, 계 7:17, 엡 3:16-19.

- A. 살아 있는 영적인 반석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율법의 권위로 맞으셨는데, 이것은 부활 안에 있는 생명수가 그분에게서 흘러나와, 그분께서 구속하신 사람들이 마실 수 있도록 그들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 출 17:6, 고전 10:4.
- B. 우리는 부활 안에서 한 영을 마실 때, 몸의 지체들이 되고, 몸으로 건축되며,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된다 — 고전 12:13, 계 22:17.

II.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 그들은 생수의 원천인 / 나를 저버렸고 / 자기들을 위해 저수조들을 팠는데 / 그것들은 물을 담아 둘 수 없는 / 새는 저수조들이었다.” — 렘 2:13.

- A.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표현인 하나님의 증가가 되기 위해서 생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마셔야 했지만, 오히려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 1. 그들은 그들의 원천 곧 근원이신 하나님을 저버렸다. 또 그들은 하나님 아닌 다른 근원을 향해 돌아섰다. 이 두 가지 악이 예레미야서 전체를 통제한다.
 - 2. 저수조들을 파는 것은 이스라엘이 사람의 노력으로 애쓰면서 하나님을 대치하는 어떤 것(우상들)을 만드는 모습을 묘사한다.
 - 3. 저수조들이 새서 물을 담아 둘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생수로 분배되지 않고서는 그 무엇도 우리의 갈증을 해소할 수 없고 우리를 하나님의 표현을 위한 하나님의 증가로 만들 수 없음을 가리킨다 — 요 4:13-14.

메시지 3 (계속)

- B.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인 곧 악을 행하는 이는 바로 그분을 마시기 위해 그분께로 나아오지 않는 사람이다(사 55:7). 악인의 악한 상태는 주님을 먹고 마시고 누리려고 주님께 나아오지 않는 것이다. 그들은 많은 일을 하지만, 주님을 접촉하고, 주님을 취하며,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맛보며, 주님을 누리려고 나아오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보다 더 악한 것은 없다(사 57:20-21, 비교 55:1-2).
- C. 하나님의 의도는 그분 자신을 사람의 만족으로 사람 안에 분배하여 하나님께서 확대되시도록 하는 것이었지만, 사람은 신실하지 않고 정숙하지 못하게 되었고 우상들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렸다.
1. 무엇이든 우리 안에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며 우리의 생활에서 주님을 대치하는 것(요일 5:21)이라면,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에 있는 우상이다(겔 14:3).
 - a. 우상들을 마음에 둔 사람들은 그들의 우상 때문에 주님에게서 멀어진다(겔 14:5).
 - b. 자기 안에 우상들을 갖고 있으면서 겉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은 그분을 찾을 수 없다(겔 14:3, 비교 렘 29:13).
 2. 이스라엘은 우상들을 숭배함으로써 그들 자신을 허망한 것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들에게 너무나 많은 우상들이 있어서 그들의 우상들이 그들의 성들의 수만곱이나 되었다(렘 2:5, 28, 11:13). 이스라엘은 그들의 영광이신 그들의 하나님의 실재를 헛된 우상들과 바꾸었다(렘 2:11, 시 106:20, 롬 1:23).
 3. 변절은 하나님의 길을 떠나 또 다른 길을 취하여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을 따르는 문제이다. 그것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들로 향하는 것이다 — 렘 2:19.
 4. 이스라엘이 바빌론 사람들에 의해 사로잡혀 갈 때, 하나님의 백성은 여전히 자기의 우상들을 버리려 하지 않아 그것들을 좋은 땅에서 바빌론으로 가져가야 했다. 하나님을 대치하거나 하나님의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무엇이든 우상이며, 그 우상은 그것에 경배하는 이들에게 짐이 된다 — 사 46:1.
 5. 말도 못 하고 소리도 내지 못하는 우상들(고전 12:2, 합 2:18-20)은 그 경배자들을 말도 하지 못하게 하고 소리도 내지 못하게 만든다. 그러나 살아 계신 하나님은 그분께 경배하는 사람들을 그분의 영 안에서 말하게 하신다(고전 12:3하, 시 115:4-8, 고후 4:13, 시 116:12-13).
 - a.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잠잠해서는 안 되고, 모두 소리를 내어 하나님의 영 안에서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라고 말해 내야 한다.
 - b.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모든 영적인 은사들의 주된 기능이다. 합당한 영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성령 안에 참여하고 성령을 누리고 체험하는 길이다 — 고전 12:3하, 비교 롬 14:17.

메시지 3 (계속)

c. “죽은 이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며 / 침묵에 떨어진 이들도 그러하다네.
/ 그러나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 할렐루야.” —
시 115:17-18.

6.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뿐 아니라 심지어 우리 자신의 모든 어떠한까지도 우상이 될 수 있다. 우상들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악했을 뿐 아니라 불성실했다. 이렇게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은 면에서 우리는 이스라엘과 똑같다.

III. 우리는 자신의 경륜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아야 한다 — 비교 시 37:3.

A. 비록 우리는 신실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애 3:23하). 잘 알려진 찬송(영한 동변 찬송가 19장(한국복음서원 찬송가 13장))의 후렴은 “신실한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 /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셔 / 내 모든 필요함 다 공급하셔 / 신실한 하나님 내 아버지”라고 말한다.

1.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관해 성경이 말하는 것과 이 찬송이 말하는 것을 천연적인 방식으로 이해하든지 아니면 영적인 방식으로 이해할 것이다.
2. 우리가 천연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로 물질을 공급하시거나 물질적인 복을 주시는 문제에서 신실하시다고 생각할 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타고난 이해에 따른 것이 아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은 우리를 그분의 아들의 교통 안으로 부르신 것에서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타고난 이해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의 복지를 돌보시는 것에서 신실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일 수 있다.
3. “사도 바울이 받은 고난들을 생각해 보라. 그는 하나님에 의해 부름을 받고, 위임을 받고, 부담을 받고, 보내심을 받았지만, 가는 곳마다 어려움을 겪었다. 예를 들면, 그는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시작하자마자 박해를 받기 시작했다. 심지어 그는 광주리에 담겨 성벽으로 달아 내려져 다마스쿠스에서 벗어나야 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신실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그렇지 않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천연적인 이해에 따른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예레미야 라이프 스타디, 39쪽) — 행 9:15-16, 23-25, 고후 11:30-33, 골 1:24, 고후 1:5, 빌 3:10, 계 1:9, 딤후 2:10, 3:12.
4.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는 외적인 평안과 축복을 기대했을지 모르지만, 반대로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우리의 안전이나 건강이나 소유를 잃어버렸을지도 모른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일들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신실

메시지 3 (계속)

하심에 의문을 품고, 왜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그러한 고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 주지 않으셨는지 질문할지도 모른다 — 행 14:22, 살전 3:2-5.

5.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도록 허락하실 때, 우리를 우상들로부터 돌이키게 하시고 그분 자신께로 다시 이끄시는 그분의 목적에 있어서 신실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우리의 평안과 안전과 건강과 소유물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수의 원천이신 그분을 마실 수 있도록 그러한 것들을 빼앗아 가시는 데 신실하시다.
 6. 예를 들어, 우리의 집이나 소유물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경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마신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러한 것들을 처리하고 우리로 그분을 마시게 하는 문제이다 — 시 36:8.
 7.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경륜 안으로 이끄시는 데 신실하시며(고전 1:9, 살전 5:23-24), 그분의 경륜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마시고,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흡수하고, 그리스도를 동화시키는 것이다.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그분의 증가를 얻으셔서 그분의 경륜을 이루신다.
 8. 우리는 자신이 이스라엘보다 더 낫지 않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 어떤 것도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경륜을 이루시는 데 신실하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마시도록 우리의 우상들을 처리하신다. 우리 모두는 생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마심으로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동화시켜야 한다. 이럴 때 하나님은 증가되시어, 그분의 배필인 우리를 통해 그분의 표현을 얻고자 하는 그분의 경륜을 성취하실 것이다 — 요 3:29-30.
- B.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회개하며 눈물을 흘릴 것이다. 그러나 그 후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누리면서(살전 5:16-18) 생수를 마시기 시작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 외에는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으시다.
1. 우리는 실패 때문에 우리 자신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셨고 자신들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는 무궁하며, 더욱이 아침마다 새롭다 — 애 3:22-23.
 2.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그의 몫이시며 그분께 소망을 둔다고 선포하기까지 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그분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계실 때 낙심할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 애 3:24-25, 비교 시 16:5, 73:25-26.

결정 연구 개요

메시지 3 (계속)

3. 우리의 실패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의와 우리의 구속이 되시고 또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실 길을 열어 드린다. 이렇게 우리 안으로 분배되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생명의 법과 함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는 생명의 역량이 되신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실패는 다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높아지심으로 우리의 중심과 전부가 되실 수 있는 길을 예비하고 열어 준다 — 램 23:5-6, 31:33-34, 골 1:17하, 18하.
4.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릴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처리하시고 또한 우리를 성숙하게 하셔서 새 예루살렘이 되게 하실 길을 갖고 계신다. 우리는 그분의 이기는 신부로서 다음 시대에 새 예루살렘이 되든지, 아니면 그분의 아내로서 영원히 새 예루살렘이 되든지 할 것이다 — 히 6:1상.
5.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대해 염려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동정이 가득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시간을 들여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실 것이다.
 - a. 현재 약하든 강하든 모든 믿는 이들은 새 예루살렘의 구성 요소가 될 것이며, 거기에서 모든 이는 성숙되어 있을 것이다 — 계 19:7-9, 21:2.
 - b.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말아야 한다. 그보다 우리는 모든 위로와 격려의 하나님으로 격려받고 위로받아야 한다 — 고후 1:3-4, 롬 15:5.
 - c. 우리는 생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마심으로써 하나님의 참된 경배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럴 때 그분은 우리 안에서 실재가 되실 수 있고, 이 실재는 결국 우리에게 참됨과 성실함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경배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요 4:23-24.